

베트남·태국서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출판진흥원, K-북 수출 상담·현지 맞춤 전략 추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베트남과 태국에서 연이어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하며 K-북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진흥원은 K-북 수출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노이 도서전은 18일부터 19일까지, 방콕 도서전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출판진흥원은 지난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도서전'을 운영하며 국내 출판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체코·폴란드·대만·미국·두바이 등 5개국에서 도서전을 개최해 총 1,045건의 수출 상담과 1,766만 달러 규모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미래엔, 웅진씽크빅, 한솔수북 등 국내 출판사 20개사가 참여하며, 국내 위탁 도서 102종에 대한 수출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수출 상담은 에릭양 에이전시가 맡아 현지 바이어와의 연결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동남아 시장을 단일 권역으로 접근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별 특성에 맞춘 전략을 강화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아동·교육·실용 분야 중심의 콘텐츠 수요에 맞춘 상담이 이뤄지며, 태국 방콕에서는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권(IP) 확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하노이 도서전에는 베트남 최대 아동·청소년 전문 출판사인 킴퓌 퍼블리싱 하우스와 경제·실용서 전문 출판사 알파북스 등이 참여한다. 방콕 도서전에는 태국 대표 종합 미디어 그룹 아미린 그룹과 현지 출판·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한 난미 북스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일대일 수출상담회와 함께 현지 시장 수출 전략 교육, 통역 지원, 바이어 발굴, 출판계 세미나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행사 종료 후에는 참여 도서를 주베트남·주태국 한국문화원에 기증해 현지 독자들이 지속적으로 K-북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독일 낭만주의 대표 명곡 만난다

전주시립교향악단, 제277회 정기연주회 '라인강의 낭만' 22일 개최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에서 제 277회 정기연주회 '라인강의 낭만'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독일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멘델스존과 슈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꾸며지며, 전주시향은 섬세한 서정성과 풍부한 감성을 담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일주시립교향악단 정주영 지휘자가 지휘를 맡아 깊이 있는 해석과 안정감 있는 연주로 공연의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공연의 시작은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서곡으로 문을 연다. 셰익스피어 희곡을 바탕으로 작곡된 이 작품은 요정들의 환상적인 분위기와 경쾌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곡으로, 낭만주의 특유의 섬세한 표현과 풍부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다.

이어 국내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이경숙의 협연으로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25'을 선보인다. 이 곡은 화려한 기교와 서정적인 선율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긴밀한 호흡이 돋보인다.

끝으로 슈만의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작품97 '리인'이 연주된다. 독일 라인강 지



역의 풍경과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작품으로,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정서가 담긴 슈만 후기 교향곡의 대표작으로 평가 받는다. 한편 공연 입장권은 S석 1만 원, A석 7000 원으로, 니루etch 누리집 또는 전화(1522-6278)로 예약할 수 있다. 학생 및 예술인패스카드·다동이카드 소지자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권희성 기자

'청년문화예술패스' 통한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

남원시, 지역 사회초년생 393명 대상 1인당 20만원 상당

남원시는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지역 사회초년생 393명에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19~20세(2006~2007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내 공연·전시·영화 등의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올해로 3년 차인 사업은 지난해 보다 사용처와 지원 금액이 확대, 이에 따라 청년들의 사업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남원시 배정 인원인 393명 모두 신청을 조기 완료했다.

현재 패스 사용이 가능한 예매처는 △공연·전시 분야 4개소(NOL티켓, YES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와 △영화 분야 3개소(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이며, 해당 온라인 예매처에서 관람료 결제 시 포인트를 조회해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신용카드와 복합 결제도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들의 주기도 요구되는 것으로, 예매일 기준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이용 내역이 전혀 없을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고, 아울러 지원금이 환수된 대상자는 올해 추진되는 2차 모집 시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박물관,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활용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박용진)이 장기간 보관돼 온 미정리 매장유산의 체계적 정리와 활용을 통해 역사문화 자산의 가치 확산에 나선다.

전북대 박물관은 국가유산청과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박물관에 보관 중인 미정리 매장유산을 일괄 정리하고 국가귀속을 추진하는 한편, 학술보고서 발간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물관은 이를 통해 2000년 이전 발굴된 미정리 매장유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물 세척과 접합·복원, 촬영, 등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유물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

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북대 박물관은 고고학·역사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 5명을 선발해 사업에 투입했으며, 이들은 고용노동부 '일모아 일자리 사업' 시스템을 통해 선발됐다.

참여 인력들은 현장 실무 경험을 축적하며 차세대 연구자로 성장하고 있어, 지역 내 연구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리된 유물은 향후 전시와 교육, 학술 연구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박물관은 매장유산을 국민과 공유하는 역사 자산으로서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해 대국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완주예술공간 라운드테이블 참여자 모집

(재)완주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정철우)은 완주예술공간의 공간 활용 방향과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완주예술공간 라운드테이블' 참여자를 모집한다.

완주예술공간은 (구)완주종합 폐관사를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2025년 레지던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현재 대관 및 재단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단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예술가 창작 활동과 주민 문화향유가 연결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예술가, 생활문화동호회, 주민, 문화예술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자 그룹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공간 활용 아이디어, 프로그램 기획, 협업 모델,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운영은 5월부터 10월까지 14~20회 내외로 진행되며, 그룹별로 운영된다. /원주=염재복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은 '나를 위한 섬, 국악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민속국악원, '나를 위한 섬, 국악 명상' 참가자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상반기 '나를 위한 섬, 국악 명상' 참가자를 모집한다. 국립민속국악원 국악 명상은 국악의 소리로 호흡과 이완을 경험하며 몸과 마음의 감각을 깨워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며, '무아, 결을 듣다'의 호흡은 감각 명상을 주제로, 명상 안내자 '숲의 그림자'의 진행에 따라 소리에 집중하고 고요 속에 머무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6회 운영, 회차별로 몸의 감각을 깨움, 공명하는 움직임, 숲의 조화, 리듬 속의 휴식, 호흡을 듣다, 소리로 비움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회차별 정원은 20명이며, 참가비는 회차별 1만 원으로 프로그램 특성상 6회차 모두 참여를 권장하며, 6회 모두 참여하는 참가자에게는 할인과 기념품 혜택이 제공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